

삶의 찬란함을 보여주는 니체의 화끈한 처방

철학과

20211005 구현우

인생에는 몇 번의 시련이 찾아온다고 한다. 이는 누구도 막을 수 없지만 각각 대처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종교를 가진 자는 ‘신은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시련을 주신다’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시련을 주신다’라고 믿으며 기도하곤 한다. 그렇다면 신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저마다 다르겠지만 나의 경우 버티지 못하고 크게 아파하는 편이다. 입시의 좌절, 생각지도 못한 질병, 소중한 존재와의 이별에 어찌할 줄을 몰라 하며 슬퍼하고 절망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무더지긴 하지만 그때의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또 하나,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한다. 제각기 다른 속도와 방식으로 그저 살아갈 뿐이다. 이 말은 ‘너는 잘못되지 않았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와 같은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주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여기에서 큰 두려움을 느낀다. 삶에 정답이 없다는 말이 오히려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혼란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스스로 길을 만들고 여러 갈래의 길 중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결정을 내리는 그 과정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회인으로서 내던져지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더욱 커진다. 정답은 없지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와 같은 질문을 몇 번이고 되뇌게 된다. 그래서 가끔 사는 것이 벅찰 때가 있다.

<사는 게 힘드냐고 니체가 물었다>에 꽃히게 된 건 그 이유 때문이다. 제목은 마치 사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나를 금방이라도 위로해 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제목에서 ‘니체’를 발견한 후 약간의 의아함이 들었다. 니체가 위로를 해준다고?

나에게 니체는 ‘과격 한 철학자’ 혹은 ‘피도 눈물도 없는 철학자’였다. 니체가 쓴 그 유명한 구절 ‘신은 죽었다’는 절대적 가치에 더는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을 가장 과격적으로 표현한 문장이었다. 또한 연민이나 약한 정신력을 혐오했다는 말은 그의 냉정함을 증명하는 듯했다. 심지어 나치 정권이 자신들의 이념을 정당화하기 위해 니체의 철학을 이용했다는 일화는 니체의 철학이 폭력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그런 자가 삶에 대해 어떤 위로를 해준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약해빠진 정신력을 비난하며 엉덩이를 걷어차는 이미지가 더 쉽게 떠올랐다.

이 책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가지게 되는 10가지 고민과 이에 대한 니체의 조언으로 이루어져 있다. 니체가 생전 남겼던 말과 책을 통해 니체의 철학을 탐구하고 이를 인생에 적용한 것이다. 책에 나온 10가지 고민 모두 내가 몇 번이고 해본 경험이 있기에 니체가 무슨 말을 했을지 궁금해졌다.

10가지 고민 중 특히 내게 와닿았던 몇 개의 고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내 맘대로 되는 일은 왜 하나도 없을까?”다. 니체는 안락한 삶이 아닌 험난한 삶과 운명을 더 선호했다. 그는 인간이 운명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운명 부정’이다.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며 만약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면 그것은 노력이 부족한 까닭으로 여겨 크게 비난한다. 그렇기에 니체는 이 관점을 자유의지의 철학, 단죄의 철학이라 불렀다. 두 번째는 ‘숙명론’으로 운명에 굴복하는 걸 의미한다.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전부 운명 탓으로 돌리며 무기력에 빠진다. 마지막은 ‘운명 긍정’(운명애의 철학)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와 재능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최대한 살리도록 노력한다. 운

명 부정과 다른 점은 자신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무작정 갈망하거나 헛된 노력을 쏟지 않는다는 점이다. 니체는 세 번째 관점에 속한다. 그는 험난한 운명에 감사하면서 그 고난이 오히려 자신을 단련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나는 이 대목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는데, 현재의 내 상태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몇 년 전, 나는 당뇨 판정을 받고 큰 절망감에 빠졌었다. 왜 나에게 이런 가혹한 시련이 찾아왔는지,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길래 이런 형벌과도 같은 질병을 얻은 건지 세상을 탓하기도 했다. 죽을 때까지 인슐린 주사에 의지해야 하고 저혈당으로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앞으로의 삶을 막막하게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이번 일로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더는 이렇게 절망하며 살 수만은 없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이에 식단 조절과 꾸준한 운동으로 혈당 관리에 사활을 걸었다. 그 결과 현재는 혈당도 안정되었고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보내는 중이다. 오히려 당뇨 판정 전보다 조금 더 건강해진 듯한 느낌도 받는다. 즉 당뇨가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 것이다. 당뇨라는 가혹한 시련을 역으로 나에게 더 이롭게 만든 점은 니체가 말한 운명애의 철학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 와닿은 고민은 “사람 사이의 갈등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이다. 이 부분에서는 경쟁과 승부욕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니체의 사상이 담겨 있다. 니체는 경쟁과 승부욕이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보았다. 경쟁으로 자신의 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므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니체는 이에 대한 예시로 든 그리스 비극을 들었다. 당시 시인들이 서로 누가 더 비극을 잘 썼는지 경쟁하였고, 그 덕분에 뛰어난 예술이 탄생할 수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니체가 무조건적으로 경쟁을 긍정하진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투쟁, 경쟁이 정당화되기 위해선 대등한 상대여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불평등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경쟁은 바람직한 경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원한을 혐오했다. 니체가 말하는 원한이란 경쟁에서 패배했을 때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 노력 부족을 반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탓하거나 저주하고 사회 구조를 탓하는 것을 의미한다.

니체의 이러한 조언에 나는 지금 한국 사회가 떠올랐다. 한국의 무한 경쟁 상태는 기형적이고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무수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경쟁에서의 패배는 곧 죄인, 도태된 존재로 전락함을 뜻한다. 만약 니체가 이 현상을 본다면 바람직한 경쟁이 아니라며 크게 비판했을 것이다. 인간을 죄인으로 여기는 단죄의 철학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하게 만들었다. 나도 시험이나 공모전 같은 경쟁에 뛰어들어 적이 많았는데, 나는 수상을 못하고 다른 사람이 수상을 하면 괜한 질투와 남탓을 한 경험이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노력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상을 못 받았지?’ 같은 생각부터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평가한 게 맞는 걸까?’ ‘애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쟁 시스템 자체가 문제인 거야’처럼 남 탓과 사회 구조 탓을 했다. 더 나아가 경쟁 없고 행복 지수가 높은 북유럽을 예찬하며 한국 사회를 깎아내린 적도 있었다.

이는 문제를 명확히 직시하지 못하고 외부에 대한 비난만 저지른 것으로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실패에 큰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도 문제이지만, 나의 능력이나 노력의 방식을 돌이켜보고 죄책감이나 저주가 아니라 성찰이 이루어져야 했다. 결국 우리는 경쟁 없는 사회가 아닌, 최대한 공정한 과정을 갖추고 성공한 자에겐 박수를, 실패한 자에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바람직한 경쟁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세 번째로 와닿은 고민은 “신념은 꼭 필요한 걸까?”이다. 니체는 신념을 삶을 짓누르는 짐

이라고 하였다. 또한 “확신은 거짓말보다 위험한 진리의 적이다”라며 확신의 태도도 경계했다. 그가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진리로 여기면 세계를 보는 시야가 편협해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확신과 신념에 의존하며 살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생기고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지만 그 대신 다양한 관점을 자유롭게 비교할 수 있는 사고의 폭과 주체적인 사고 능력을 잃게 된다. 이에 니체는 확신의 노예가 되지 말고 확신을 우리 자신의 고양과 강화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는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게 바람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집의 가훈이나 나의 좌우명 등을 써오는 게 숙제였을 만큼 사회적으로 신념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였다. 물론 ‘겸손하라’ ‘가족과 친구를 사랑하라’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와 같은 지극히 당연하고 아주 기본적인 미덕 혹은 규범을 지키는 건 니체도 용인하겠지만 문제는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인 견해가 강하게 들어간 신념이다. 역사적으로 이런 과격한 신념은 재앙을 불러왔다. 현재에 이르러서도 우리는 종교적, 정치적 신념에 매몰되어 과격한 언행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니체는 핵심을 꿰뚫는 말을 했다. “어떤 독단적인 이념을 확신하는 자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이념이 자신의 삶에 확고한 의미와 방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다. 즉, 진리라서가 아니라 삶에 위안을 주니까 믿는다” 과격한 확신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면서 마음에 안정을 주게 되고 그에 따라 신념에 계속해서 매달리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와닿은 질문은 “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이다. 니체는 “그대는 그대 자신이 되어야 한다”와 “자기를 극복해라”라는 두 가지 말을 했다. 얼핏 보면 서로 모순되는 문장 같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니체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하다. ‘그대 자신’이 자신의 성격과 소질 등을 승화시킨 참된 자기라면, ‘자기’는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형에 영합하려는 거짓된 자신이다. 즉 니체는 사회에 의해 강제된 인간상이 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약점, 고난을 자기발전의 계기로 승화시키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삶에 하나의 고유한 스타일을 부여하는 것이 초인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때 자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는 걸 넘어 신체를 엄격히 단련해야 하며, 그로 인해 영혼이 강해진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하면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움직이라는 말이다. 가만히 앉아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만 하면 정작 실천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신체와 감정, 생각을 단련하면 건강한 본능으로 거듭나고 경쾌하고 자유로운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니체의 이러한 말은 가만히 앉아 스스로 변화하길 바라는 나의 나태함과 수동적인 태도를 꾸짖는 듯하다. 무언가를 할 때 최대한 위험을 피하고 덜 고통스러운 방법만을 생각한 나는 정작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채, 나 자신이 더 나아지길 기다리고 있었다. 열정을 가진 채 끊임없이 부딪히고 내게 가해진 상처들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기를 주저한 것이다.

<사는 게 힘들냐고 니체가 물었다>는 방황하는 나에게 적합한 조언을 전해주었다. 이로써 내가 이전에 니체에게 가졌던 편견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과격하고 위험해 보였던 그의 철학은 사실 인간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 있는 철학이었다. 삶을 무한히 긍정하며 마냥 낙관만을 전하지도, 그렇다고 쇼펜하우어처럼 지나치게 비관적이거나 염세주의적이지도 않은 관점이었다. 그의 조언은 과격하고 냉혹해 보여도, 삶의 찬란함을 발견하게 만들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대안을 주기도 한다. 이 책을 통해 나는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 가혹한 시련에 상처받더라도 산산히 부서지진 않을 것 같고, 경쟁에 열중하면서도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고 성찰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 같다. 살아가는 데 어느 정도의 신념과 확신을 가지더라도 그것에 매몰되어 세상을 하나의 시각으로만 바라보진 않

을 것 같고, 가끔은 누워 있더라도 이내 벌떡 일어나 해야 할 일을 해내고야 마는 신체와 마음을 가지게 될 것 같다. 니체가 강조한 초인처럼은 살지 못하더라도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희망을 이 책이, 니체가 나에게 주었다.